하나님께 최적화 마음 프로그램

(출20:18~26)

18.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1.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최적화 마음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께 최적화 마음 프로그램'
하나님 관계의 최적화 되는 마음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해도 되고,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하나님 맞춤형 인간으로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흔히 장사 맞춤형 인간, 사업 맞춤형 인간, 공무원 맞춤형 복지, 공무원 맞춤형 연금제도, 자녀 맞춤형 인간 등 맞춤형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은 맞춤형 인간으로 세상을 삽니다.
즉, 자녀 맞춤형 인간일 경우 삶의 형편자체가 자녀에게 맞추어진 부모가 있고, 사업에 맞추어져 있으면서 곁다리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장사를 할 때에도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하느냐, 이익맞춤형 장사를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하나님 맞춤형 인간이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선민이라도 장사 맞춤형이 아니고, 부모 노릇을 하는 선민이라도 자녀 맞춤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맞춤형 인간이 선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맞춤형 인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관계에 최적화 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음악회를 갈 때에 프로그램은 연주될 곡의 목록이 소개가 되고, 그 프로그램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곡이 연주되고, 방송 프로그램은 시간대별로 방영될 내용들이 프로그램

된 대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작동하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저렇게 움직이라는 명령어를 받아서 한 동작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명령어의 모음이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서 최적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컴퓨터가 작동하게 됨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선민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그 지시어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경우에 하나님 관계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고 그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우리가 선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 최적화된 마음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9장에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로 백성들이 무서워합니다. 그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8절에 다시 한 번 요약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19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운명적 동반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그런 상대자라는 것입니다.
'우뢰와 번개, 빽빽한 구름, 큰 나팔소리, 연기, 산의 진동, 맹렬한 불'로 임재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때에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반자의 입장, 운명적 파트너의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기이한 현상들에 적합한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고 육체로 실감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에 나타났던 기이한 현상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레와 번개'
시내 산 지척에서 우레와 번개가 친다는 것은, 애인과 마주 앉아서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식사

를 하며 달콤한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그런 황홀한 장면에서일지라도, 하늘에서 우레가 꽝! 번개가 번쩍하면 바라볼 수밖에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릴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반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세상의 그 누가 그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이 세상의 그 누가 어떤 대답을 주더라도 그것을 들으면 안 되고, 지척에서 우레와 번개가 칠 때처럼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큰 나팔소리'

이 말도 지척에서 일어나는 우뢰와 번개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듯이, 그렇게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삶에서 최우선적인 이벤트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일상적인 모든 삶을 다 뒤로 제치고 나팔로서 알려지는 사건에 몰두하라는 것으로, 우뢰와 번개와 나팔소리가 연이어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사업장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이벤트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급하더라도 나팔 소리가 나서 전쟁을 알리면 사업을 다 접어두고 전쟁하러 나가야 하고, 나팔 소리가 나서 임금님이 마을에 행차하시면 마을 주민이 다 임금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밥을 짓다가도 다 놔두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문제나 인간관계 등 어떤 급박한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되더라도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주어지지 않고, 주어진다 하여도 가짜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이 최우선적으로 관계의 대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관계한다는 것은 그 분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는다는 것으로, 우뢰와 번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일이 큰 나팔 소리로 알려지는 가장 우선적인 이벤트로 이것이 바로 마음 프로그램의 첫 단계입니다.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합니다.

'시험하고'

이 말은 우리의 상태와 실력과 능력을 알아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함께 잘 갈 수 있고 원활하고 막힘없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의 상태는 도저히 우뢰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산의 진동, 불과 연기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주십니다.

22-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시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우상 따위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우상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상숭배는 반대에 서 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말씀은 내용이 있고, 내용이 없는 것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말씀이 되려면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내용은 생각하는 것이고 의견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소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적합화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우레와 번개와 연기 등을 동반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첫째 단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너희의 말을 죽이라는 것이고, 너희 말을 죽이지 않으면 우상숭배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죽인다.’
이 말은 말의 내용인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소원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나도 자꾸 내 생각과 계획을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적화 마음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체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하십니다.
‘복을 주리라’
우리는 복을 돈이나 건강 등으로 생각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있어도 기쁘지 않을 수 있고, 건강해도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과 상관없이 기쁠 수 있다면 그것이 복 아닙니까? 복의 내용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이것이 없으면 다 껍데기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뢰와 번개소리를 듣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최우선적인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데 마주대하다가 등 돌리면 하나님은 거기서 또 마주대하십니다. 연기가 나를 둘러싸듯이 대하시는데,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나를 마주대하십니다.
즉,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우레와 번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삶에서 어떤 사건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적인 이벤트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내게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첫 단계가 지나고, 두 번째 단계로서 생기는 문제는 자꾸만 내 속에서 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토담과 돌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주체성을 죽이는 일을 날마다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최적화된 상태가 되었으므로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내가 너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의 만족이 되고, 내가 너의 행복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십계명의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반복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가리키는 존재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명사를 마음에 집어넣으면 돈이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실제의 사물을 마음으로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그리움 속에 안식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리트머스시험지로 부모가 공경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맞춤형 인간이 되어있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 최적화 마음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이 여섯 계명이 내가 말하고 움직일 때마다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최적화 프로그램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돈 벌었으면 하는 소원, 멋진 차를 사고 싶은 소원인 나의 주체적인 모든 활동을 죽이는 것으로, 번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동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향상되어 가듯이, 하나님 관계에 최적화 마음 프로그램의 결정판은 십자가로, 십자가 사건에 내 마음을 싣는 인격적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순간을 연기로 둘러싸듯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고, 뒤로 가도 나를 대하시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나를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후반부의 여섯 계명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상숭배의 뿌리가 되는 나의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내 주체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체성이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다른 이름들인 명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명사를 마음에 담으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소원과 의지를 발동하고 계획이 발동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에 어떠한 명사가 들어오면 주체성이 발동되므로, 모든 명사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고 하나님 이름만 남게 되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게 되고, 안식일 규정의 속 내용이 날마다 지켜지게 되고, 그래서 최적화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므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내가 움직이기 위한 지시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첫 번째 이벤트로 삼겠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느냐?
두 번째 단계로 십자가로 나의 주체성을 죽이는 것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모든 명사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남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되고,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한 그리움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합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매 순간마다 하게 하는 최신의 프로그램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손으로 쥐듯이(돈을 손에 쥐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출14: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관광하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지금처럼 편리한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는 손을 못 댔습니다. 작은 문제만 생겨도 전문가를 불렀는데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저 같은 문외한도 마우스를 붙잡고 클릭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관계에 대한 최적화 프로그램입니다. 그 십자가 하나 붙잡고 살아가다보면 만사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

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레와 번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적으로 들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내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이벤트로 삼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십자가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던 나의 주체성이 죽어버리고, 십자가로 죽으면 그런 주체성에 의해서 내 마음에 끌어들였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게 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망령되게 일컫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움이 하나님께 전달되면 그 그리움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데이트(밀회)를 해주시는데, 그 데이트가 이루어질 때 우레와 번개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면 내 사지의 움직임은 그 말씀에 따라서 작동하게 되고, 후반부의 여섯 계명과 그 이상의 것이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 포도열매가 맺히듯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가장 최신의 가장 아름답고 기가 막히는 하나님 관계의 최적화 마음 프로그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의 최적화 마음 프로그램의 최신판이고 최선판인 십자가 프로그램을 날마다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